

2013년 3/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

박희석

서울연구원
서울경제분석센터장

2013년 3/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

	요약	3
I.	최근의 서울경제 여건	4
II.	서울의 3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	7
III.	요약 및 시사점	19
	부록 : 2013년 3/4분기 주요 조사결과	21

박희석

서울연구원
서울경제분석센터장

02-2149-1227
hspark@si.re.kr

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, 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세

서울의 산업생산은 2013년 들어 급감하던 하락세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이후 감소폭이 증가하여 2013년 7월 -14.3%를 기록하는 등 최근 6개월간 평균 -8.9%의 성장률로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. 내수로 대표되는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최근 6개월간 평균 1.5%의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내수 정체가 우려된다. 서울의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취업자 수는 2013년 상반기 동안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6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개월 연속 평균 0.8% 증가하였다.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율도 2013년 상반기 동안 하락폭이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 7월 -3.2%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. 따라서 청년취업 활성화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2013년 3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어 다시 주춤

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3년 3/4분기에 전(前) 분기 대비 2.5p 하락한 87.7로 2012년 3/4분기 이후 4분기 만에 2013년 1/4분기 수준으로 감소하였다. 「소비자태도지수」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도 전 분기 대비 2.1p 하락한 85.7을 기록하였으나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102.3으로 기준치(100)를 상회하여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 「소비지출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0.2p 상승한 92.0을 기록하였으나 현재 경기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으로 여전히 소비심리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. 2013년 3/4분기 「물가전망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2.0p 하락한 143.2로 소비자들의 물가불안심리는 지속적으로 진정되고 있으나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는 3.7p 하락한 91.8로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 체감경기의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.

서민경제 안정화, 고용 유지 및 내수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

가을 이사철 등에 대비해 서민들이 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,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보 창구를 확대하는 등 생활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. 또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노력과 서울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,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.

I.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

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, 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

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는 7월 들어서며 다시 큰 폭으로 하락세

- 최근 자본재, 중간재 생산의 급감과 소비재 생산의 꾸준한 감소세로 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는 하락세
- 「산업생산지수」는 2013년 4월(-4.5%)까지 감소세가 두 달 연속 개선되었으나 그 이후 감소폭이 증가하여 최근 6개월간 평균 -8.9%
- 모든 재별 생산의 하락으로 2013년 7월 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-14.3% 기록
- 부문별로 자본재와 소비재, 중간재 생산은 2013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-11.9%, -13.7%, -18.1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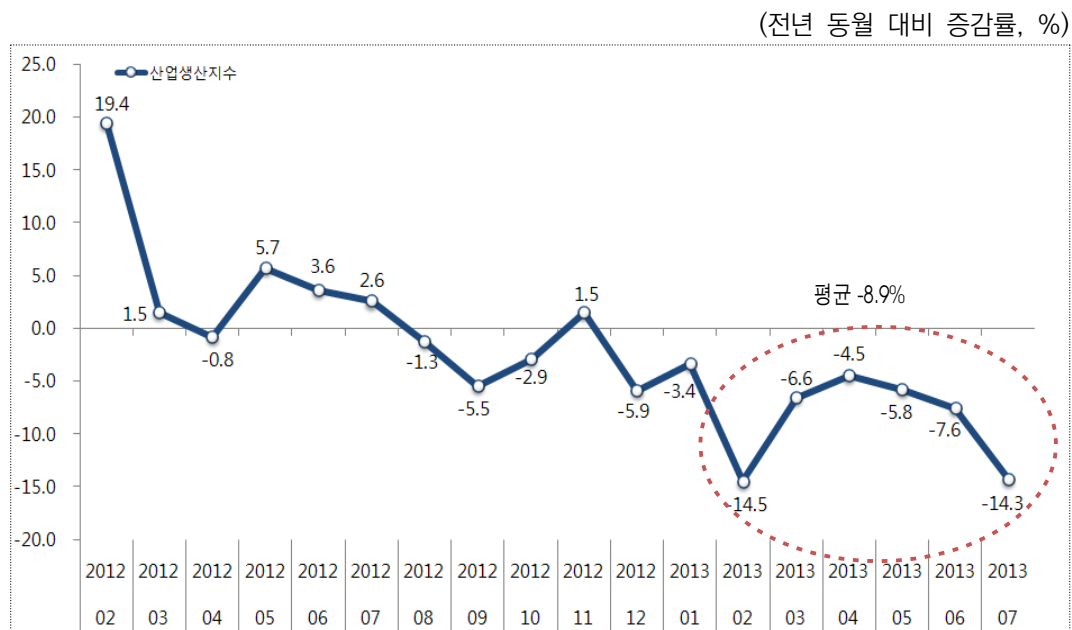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서울의 산업생산

자료 : 통계청

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최근 6개월간 평균 1.5%로
증가세를 유지

-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2013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1.7% 증가
-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-1.1%,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4.0%를 기록하여 대형마트 위주로 판매액지수가 증가
-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 증가율은 2013년 1월 -9.3%로 저점을 기록한 후 최근 6개월간 평균 1.5% 증가
- 그러나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최근 6개월간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내수 정체가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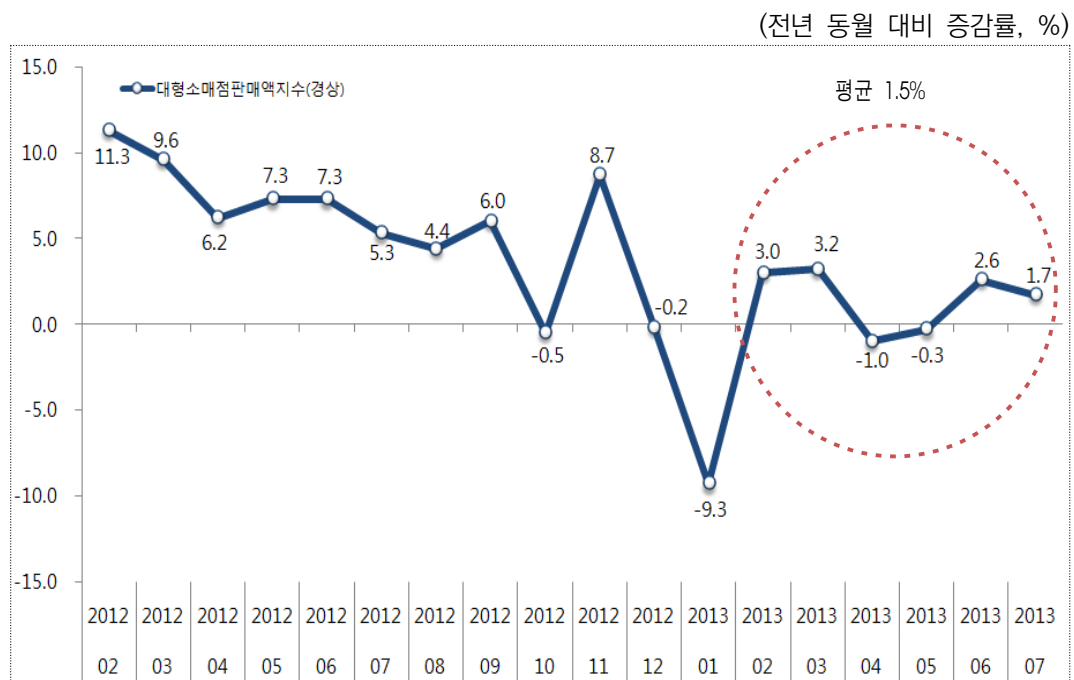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

자료 : 통계청

전년 동월 대비 「총 취업자 수」 증감률은 소폭 상승세

- 2013년 7월 서울의 「총 취업자 수」는 전년 동월 대비 0.8%가 증가한 5,141명
 - 「총 취업자 수」 증가율은 2013년 5월 0% 성장률을 기록한 후 지난 6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개월 연속 평균 0.8% 증가
- 2013년 7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2%가 감소한 901명
 - 2012년 1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
- 청년취업의 활성화정책이 진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단기적인 정책효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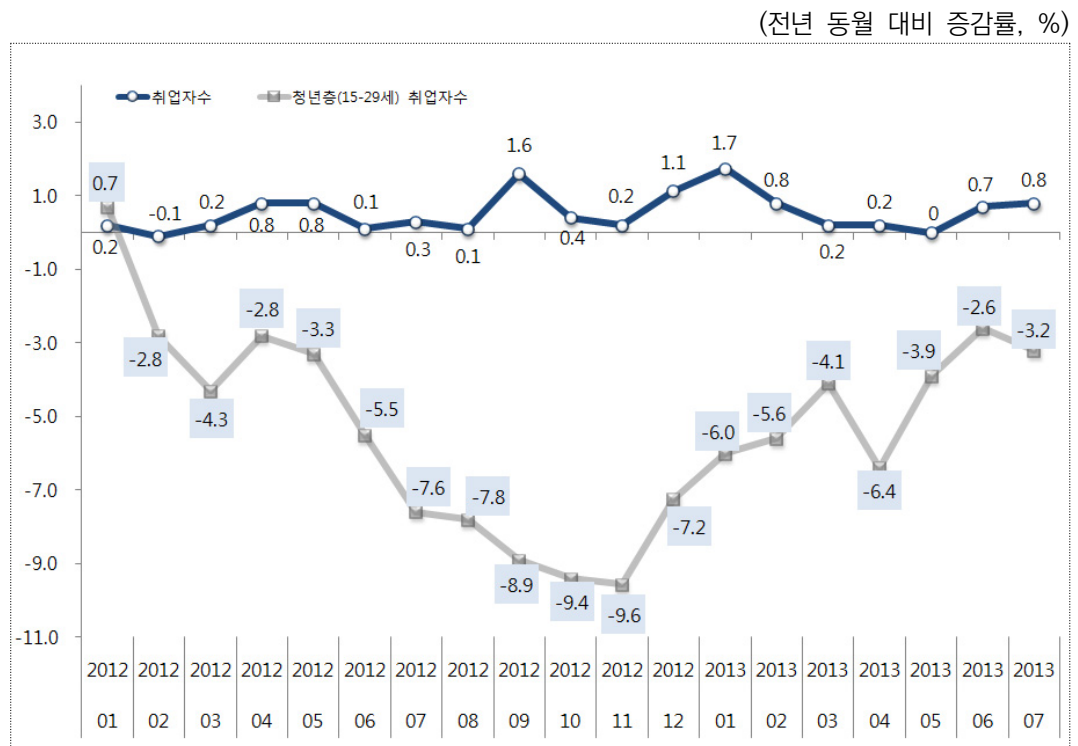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서울의 취업자 수

자료 : 통계청

II. 서울의 3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

시민의 체감경기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약화로 다시 주춤

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4분기 만에 하락세로 반전

- 2013년 3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87.7로 전(前) 분기보다 2.5p 하락
- 2012년 3/4분기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 4분기 만에 2013년 1/4분기 수준의 체감지수로 복귀
- 물가 상승세의 진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체감경기 개선, 상반기 새로운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전월세 급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민들의 소비심리는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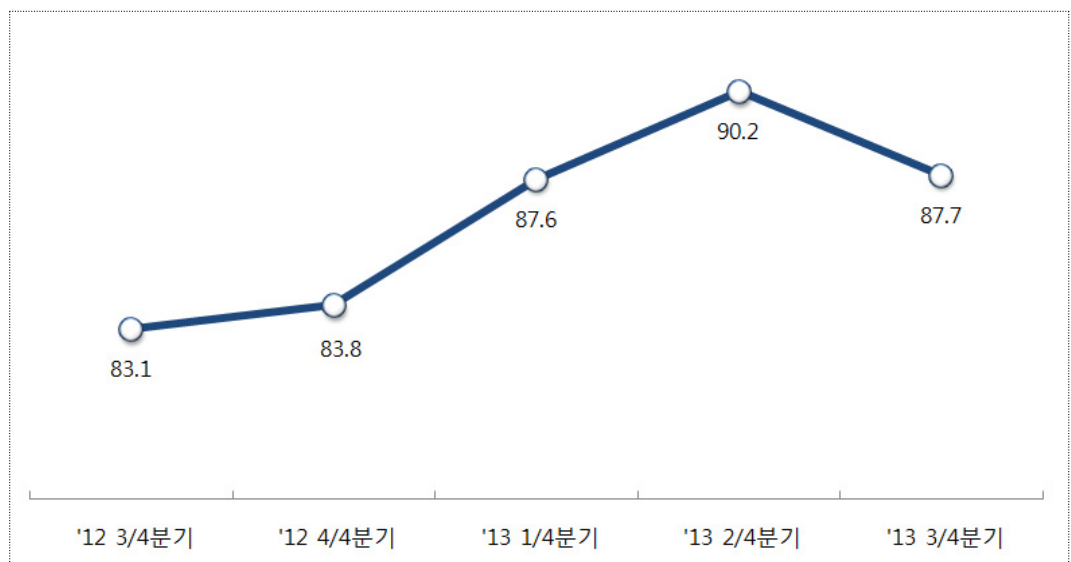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

서울의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 하락

- 2013년 3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2.1p 하락한 85.7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2.2p 하락한 102.3을 기록
-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3분기 연속 평균 86.0에 머물러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

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

-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3분기 연속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기준치(100)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는 다소 긍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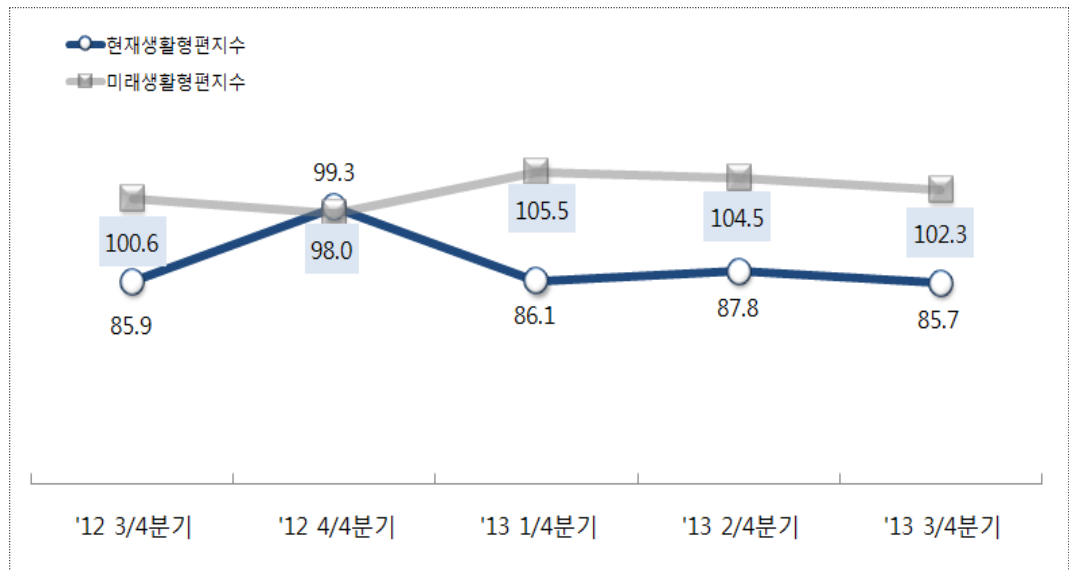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서울의 생활형편지수

권역별로 보면 서남권이 1년 전 대비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

- 서울 전체의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 85.7보다 높은 지역은 서북권(89.7), 동남권(88.2), 동북권(86.0) 순으로 생활형편을 긍정적으로 판단
- 반면 서남권은 5개 지역 중 최하인 82.4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

소득수준별로 보면 2,000만원 이하의 소득층에서 1년 전 대비 현재 생활형편을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

- 소득이 높아질수록 현재 생활형편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증가
- 6,0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95.2로 최저값을 기록한 2,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

에 비하여 18.5p 높은 지수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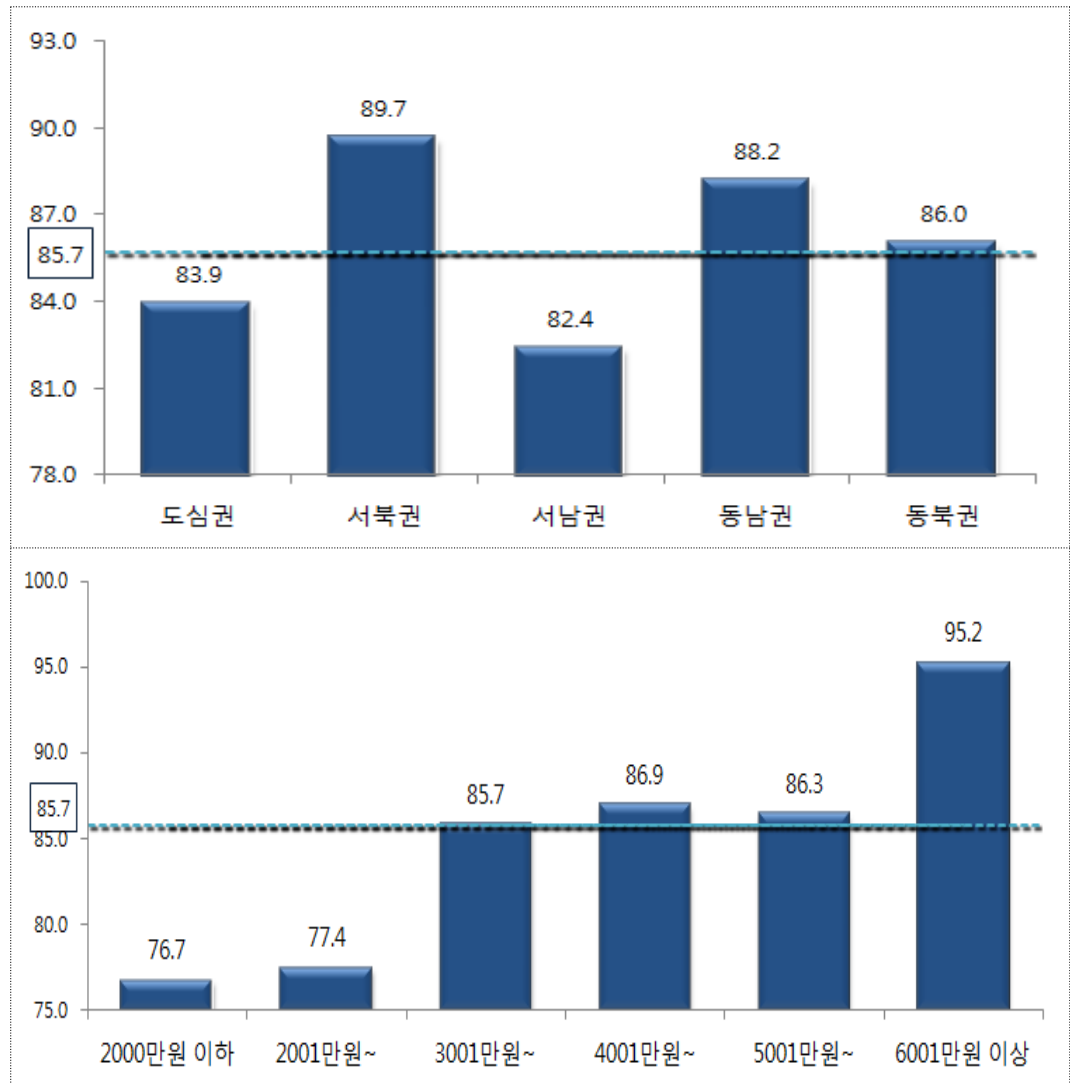


그림 6. 서울의 권역별, 소득수준별 생활형편지수

서울의 현재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

- 2013년 3/4분기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2.7p 하락한 62.1을 기록
-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2/4분기까지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하고 있

어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
- 2013년 3/4분기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는 94.1로 전 분기 대비 5.6p 하락
-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는 2013년 1/4분기 100.4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다시 2분기 연속 하락하여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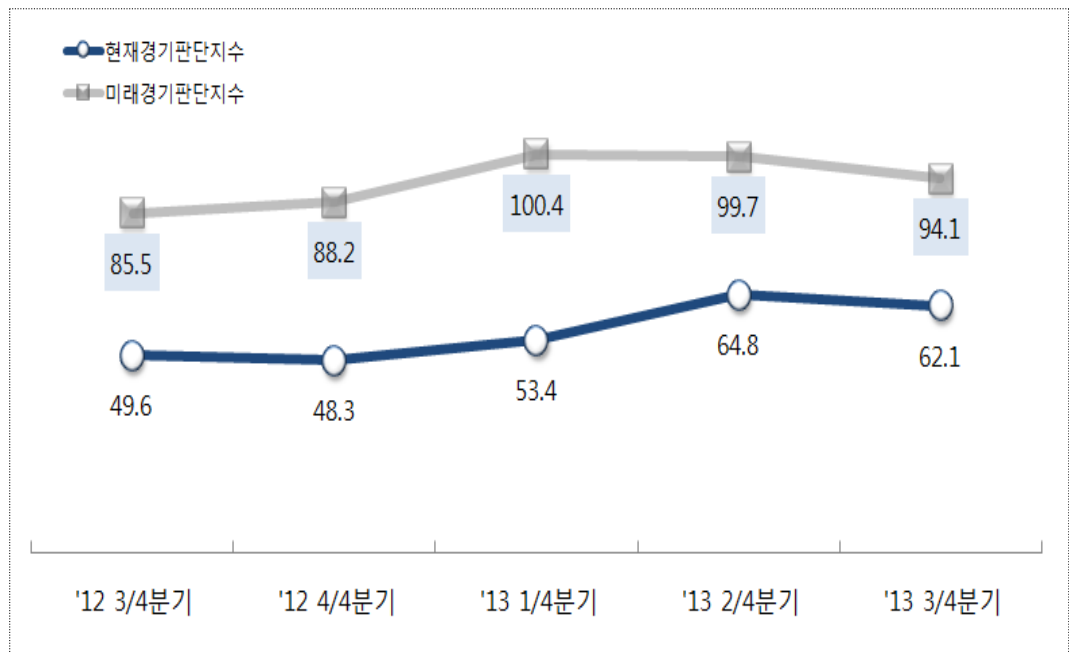


그림 7. 서울의 경기판단지수

권역별로 보면 서남권에서 1년 전 대비 현재 경기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

- 5개 지역 중 도심권(64.3)과 동북권(63.1)만이 전체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여 현재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
- 반면 서남권(60.7)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현재 경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

소득수준별로 보면 4,001만~5,000만원의 소득층에서 현재 경기를 1년 전에 비해 부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

- 2,000만원 이하(65.2)의 저소득계층과 6,001만원 이상(64.3)의 고소득계층, 3,001만~4,000만원(63.5)의 중소득계층에서 전체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
- 반면 4,001만~5,000만원(57.8) 계층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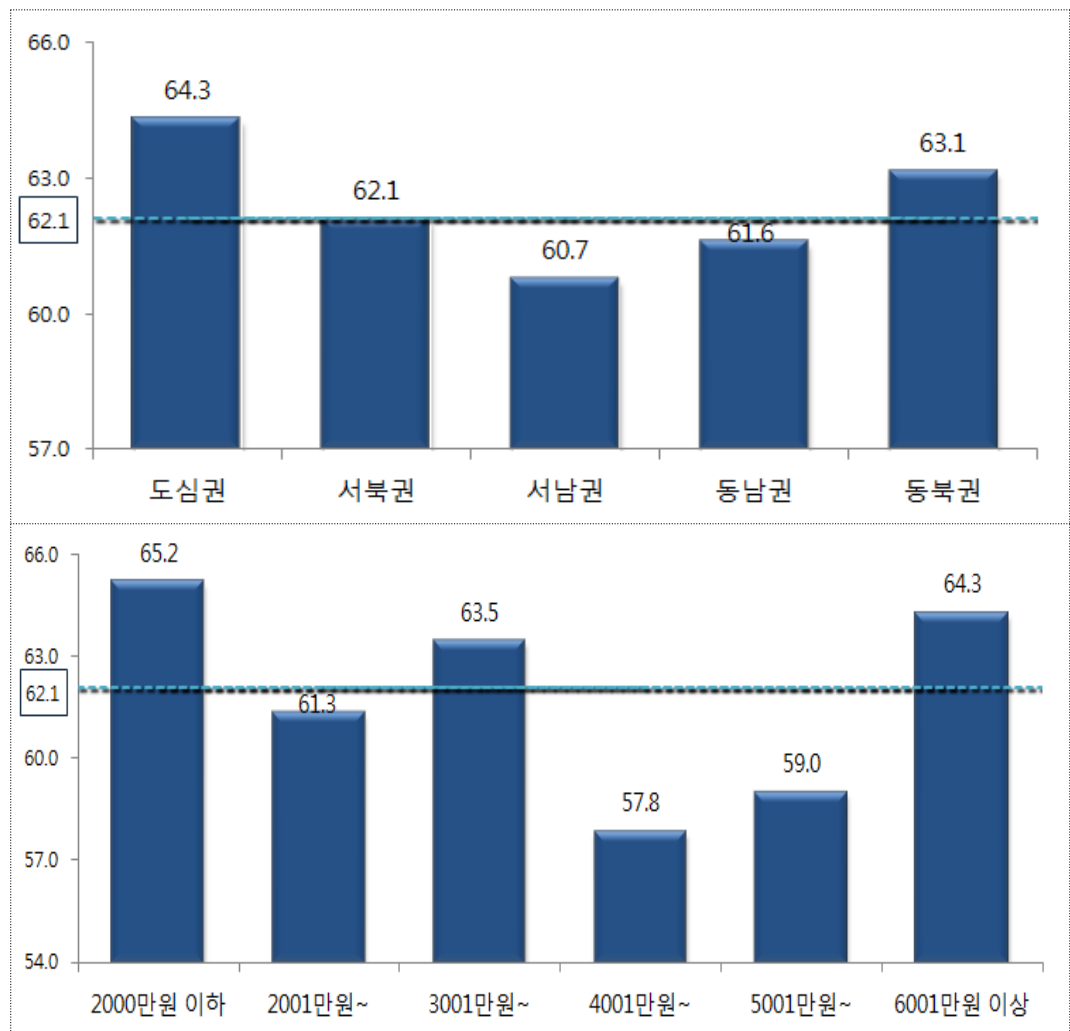


그림 8. 서울의 권역별, 소득수준별 경기판단지수

서울의 현재 소비지출은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미래 소비 지출은 소폭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조사

- 2013년 3/4분기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92.0으로 전 분기 대비 0.2p 소폭 상승
 - 현재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으로 소비지출 수준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
- 2013년 3/4분기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0.5p 하락한 97.2를 기록
 -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5분기 연속 기준치(100)에 근접한 값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난 1/4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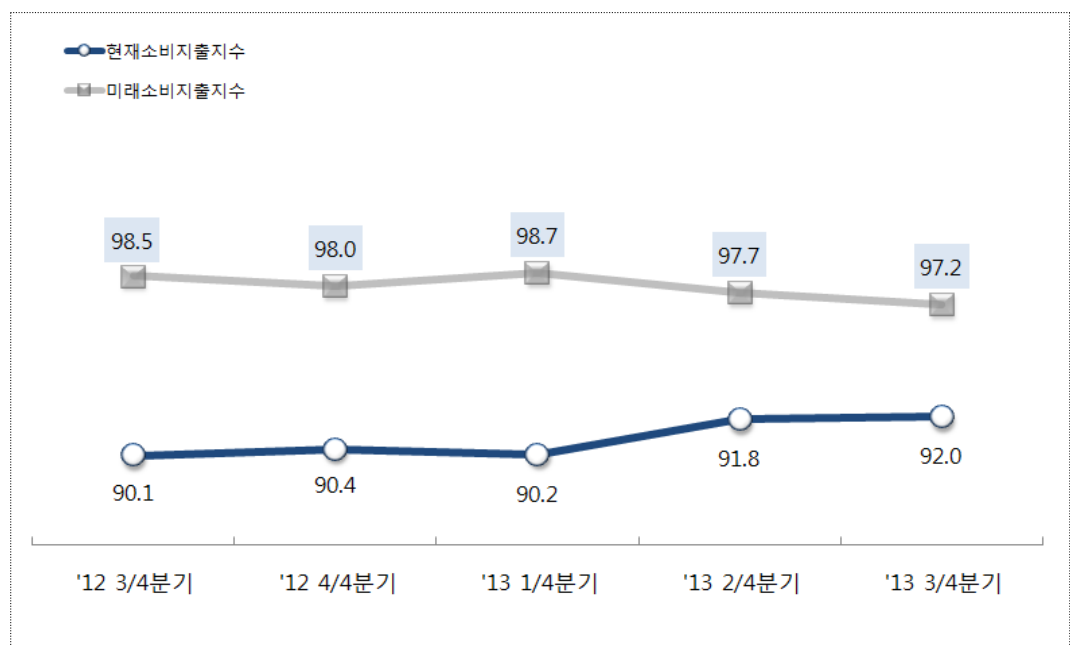


그림 9. 서울의 소비지출지수

품목별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 조사 결과, ‘교육/문화비’, ‘교통/통신비’ 등에서 지출 감소가 전망

- ‘교육/문화비’는 전 분기 대비 3.4p 감소한 108.4, ‘주거비’는 전 분기 대비 0.5p 상승한 100.4, ‘교통/통신비’는 전 분기 대비 1.7p 감소한 100.1을 기록하며 기준치 (100)를 상회

- ‘식료품비’는 전 분기 대비 1.0p 상승한 97.4, ‘기타’ 항목은 전 분기 대비 0.8p 하락한 90.8, ‘의류비’는 전 분기 대비 1.3p 상승한 86.3을 기록
- 전 분기보다 향후 소비지출을 늘리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준치 (100)를 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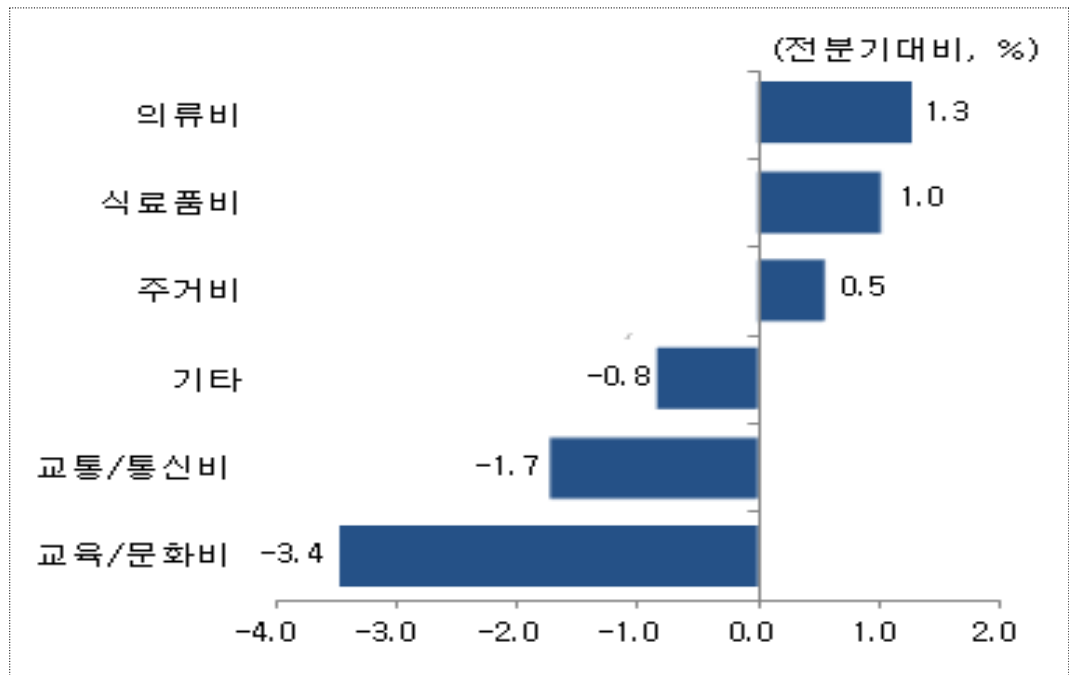


그림 10. 서울의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의 전 분기 대비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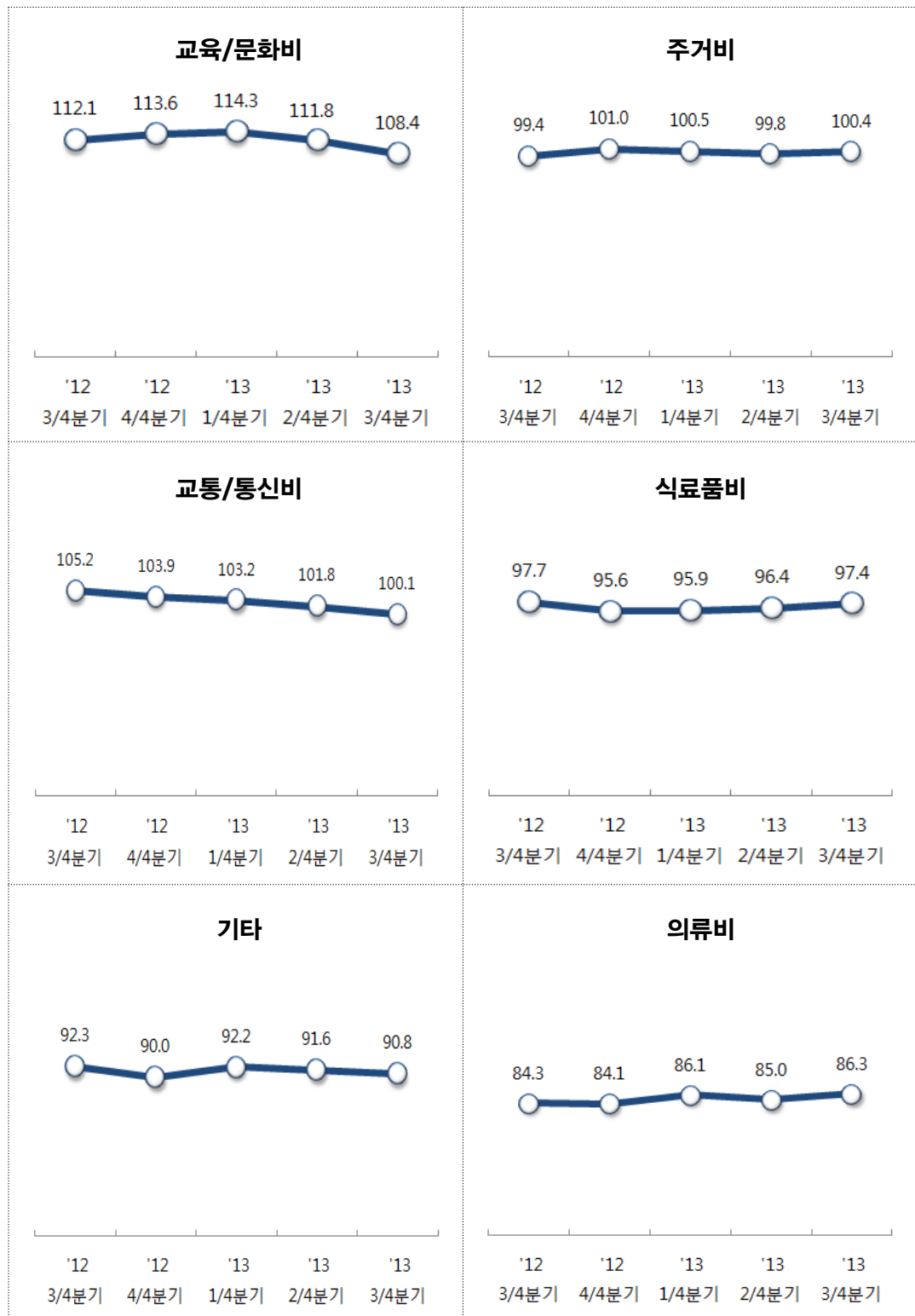


그림 11.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

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태도는 횡보, 주택구입의사는 위축

- 2013년 3/4분기 「내구재구입태도지수」는 전 분기와 동일한 94.4를 기록하여 내구재 구입에 대한 기대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
- 2012년 4/4분기를 제외하고 1년 내내 90대 초반의 값을 기록하고 있어 자동차, 가구 등 장기간 사용되는 내구재에 대한 소비심리는 유보적
- 「주택구입태도지수」는 96.9를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9.4p 하락
- 2/4분기에 기준치(100)를 상회하며 회복 기대 심리에 있던 「주택구입태도지수」는 전세난 등의 주택시장 불안으로 기대 심리가 다시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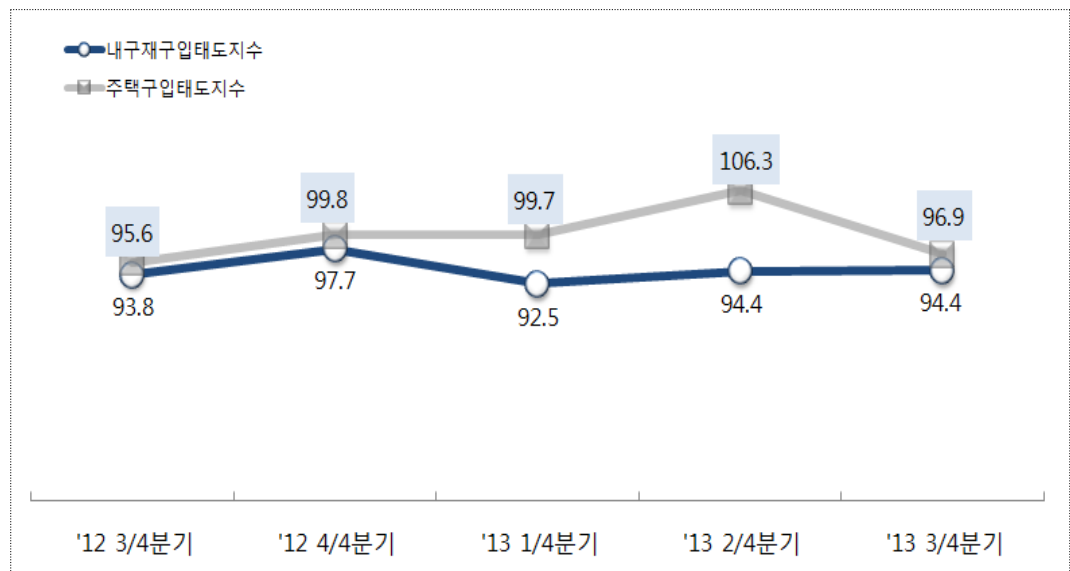


그림 12.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

권역별로는 서남권의 1년 전 대비 내구재구입태도에 대한 기대가 가장 부정적

- 도심권과 서북권(100.9)에서의 내구재구입태도는 기준치(100)를 상회하고 있어 현재가 내구재구입시기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
- 반면 서남권(91.9)에서의 내구재구입태도가 전체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

소득수준별로 보면 4,001만~5,000만원의 소득계층에서 내구재 구입태도에 대한 기대가 가장 부정적

- 4,001만~5,000만원(91.3)과 3,001만~4,000만원(91.5)의 소득계층에서의 내구재 구입태도가 전체 내구재구입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
- 반면 2,000만원 이하(97.4)의 저소득계층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재가 내구재구입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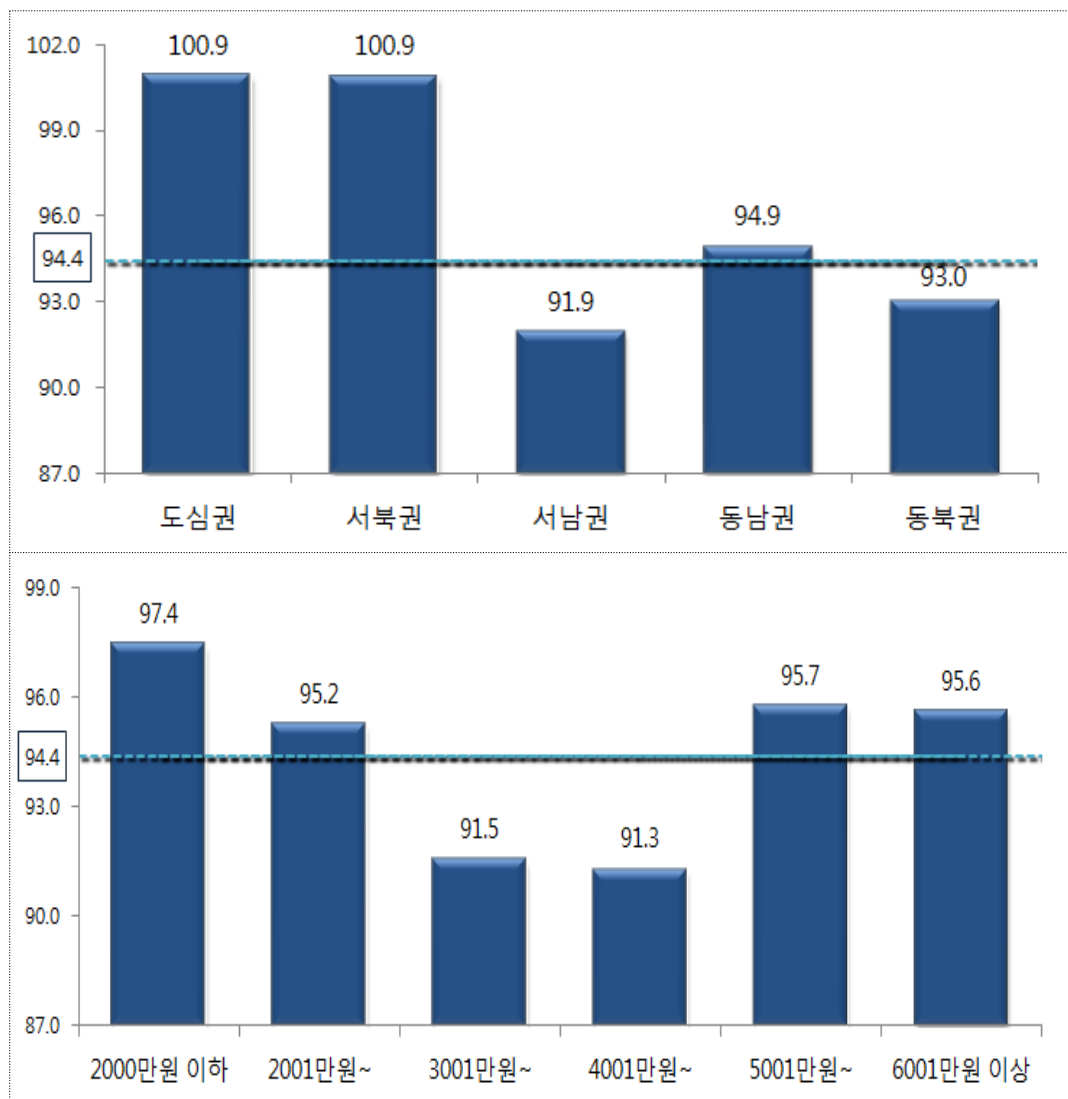


그림 13. 서울의 권역별, 소득수준별 내구재구입태도지수

「주택구입태도지수」를 권역별로 보면 동남권이 주택구입에 대한 기대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
- 반면, 서남권은 100.5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

소득수준별로 보면 4,001만~5,000만원의 소득계층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주택구입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

- 4,001만~5,000만원의 소득계층(90.6)에서의 주택구입에 대한 태도가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가장 부정적
- 반면, 6,001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(102.2)과 3,001만~4,000만원의 소득계층(100.3)에서는 현재 주택구입에 대한 계획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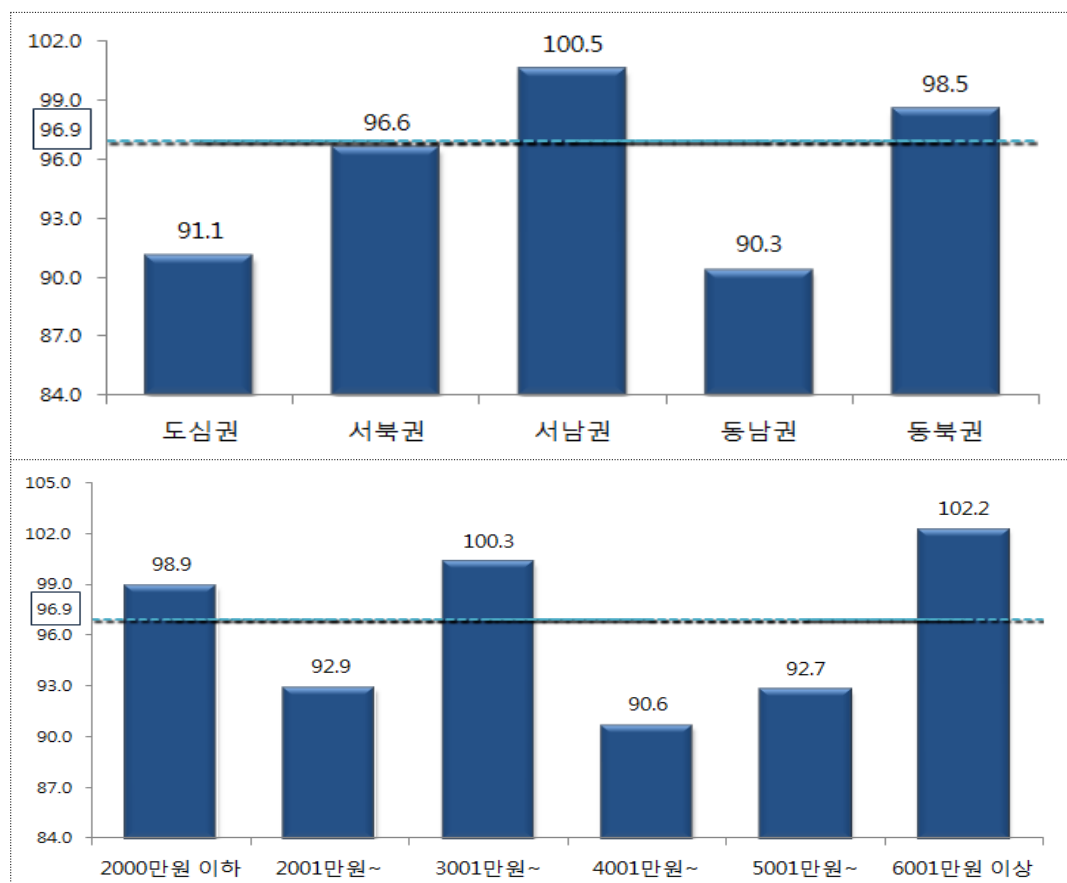


그림 14. 서울의 권역별, 소득수준별 주택구입태도지수

서울의 물가불안심리는 지속적으로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
상황과 순자산은 3분기 연속 하락세

- 2013년 3/4분기 「순자산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0.8p 하락한 95.1로 지난 1/4분기부터 계속 감소 추세
- 2013년 3/4분기 「물가전망지수」는 전 분기보다 2.0p 하락한 143.2로 향후 물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
- 2013년 1/4분기부터 물가 오름세가 완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물가불안심리는 계속 하락
- 2013년 3/4분기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는 91.8로 전 분기 대비 3.7p 감소
- 최근 3분기 연속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가 감소하고 있으며 여전히 기준치(100) 이하로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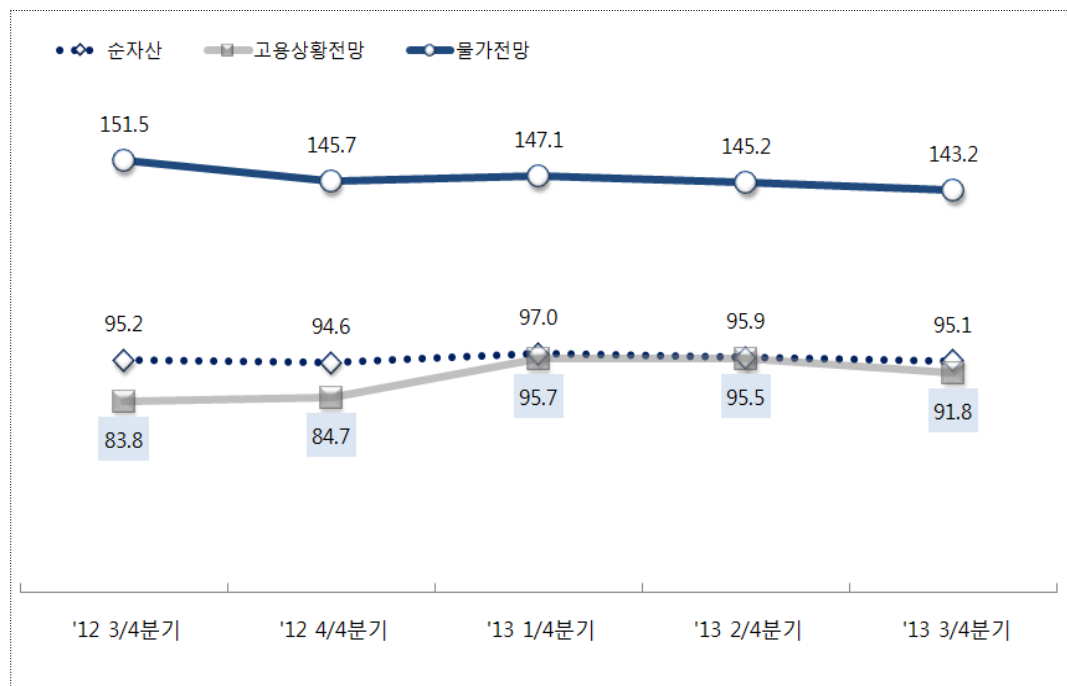


그림 15. 서울의 순자산, 고용전망, 물가예상지수

III. 요약 및 시사점

2013년 3/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와 소비심리가 위축

서울의 산업생산 하락과 내수 증가의 둔화로 경기회복세는 지연

- 산업생산과 청년층 취업자 수의 하락폭이 증가하고, 소비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소폭으로 증가
- 최근 6개월간 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는 평균 -8.9%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,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7월 백화점의 소비지출 급감(-5.1%p)으로 전체 대형소매점 소비지출은 1%대 증가로 주춤
- 「총 취업자 수」는 지난 6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개월 연속 평균 0.8% 증가하였으나, 「청년층 취업자 수」는 7월 들어 하락폭이 증가하여 -3.2%를 기록

전반적인 체감경기 위축으로 시민의 소비지출은 여전히 정체

-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3년 3/4분기에 87.7로 전 분기 대비 2.5p 감소
- 2013년 3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85.7,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62.1로 현재의 생활형편 및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
- 물가 상승세의 진정으로 저소득층의 체감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최근 전월세 급등의 주택문제 등으로 서울시민들의 소비심리는 부진

서민경제 안정화, 고용 유지 및 내수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

서민 금융,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책 강화로 서민경제를 안정화

- 명절 전·후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활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

여 가계부채의 부담을 감소

- 가을 이사철 등에 대비해 서민들이 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부업체 지도,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민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
- 8.28 주택정책 이후, 급등하고 있는 전월세 가격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늘리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 창구를 확대
-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노력과 서울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
- 저소득, 고령, 저학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심층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‘시민일자리설계사’ 등의 활용을 높이고, 청년취업을 위한 고용포럼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
-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고 안정적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‘서울형 뉴딜일자리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취업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정보 제공

영세상인의 지원 및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내수 경기를 회복

- 서울의 내수시장 회복을 위하여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
-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할인 행사 등 영세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
-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이 정치적 외부 환경에 상관 없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

부록 : 2013년 3/4분기 주요 조사결과

표 1.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

	소비자 태도	생활형편		경기판단		구입태도	
		현재 생활형편	미래 생활형편	현재 경기판단	미래 경기판단	내구재 구입태도	주택 구입태도
2012년 3/4분기	83.1	85.9	100.6	49.6	85.5	93.8	95.6
2012년 4/4분기	83.8	99.3	98.0	48.3	88.2	97.7	99.8
2013년 1/4분기	87.6	86.1	105.5	53.4	100.4	92.5	99.7
2013년 2/4분기	90.2	87.8	104.5	64.8	99.7	94.4	106.3
2013년 3/4분기	87.7	85.7	102.3	62.1	94.1	94.4	96.9

표 2.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

	소비지출		순자산	고용상황	물가예상
	현재 소비지출	미래 소비지출			
2012년 3/4분기	90.1	98.5	95.2	83.8	151.5
2012년 4/4분기	90.4	98.0	94.6	84.7	145.7
2013년 1/4분기	90.2	98.7	97.0	95.7	147.1
2013년 2/4분기	91.8	97.7	95.9	95.5	145.2
2013년 3/4분기	92.0	97.2	95.1	91.8	143.2

본 조사는 2008년 3/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,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, 표본의 신뢰수준은 95%, 오차는 $\pm 3.1\%$ 임(2013년 3/4분기 조사 시점은 2013년 8월 중하순).